

#화법과 작문 개론

화법과 작문은 출제 유형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 Team KUKLL에서는 2022학년도 국어에 선택과목이 등장한 이후로 모든 모의고사를 분석하여 각 지문 별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을 파악하였고, 이에 대한 풀이법을 정립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실제 문제에서의 배치를 고려하여 화법, 복합, 작문 순서대로 제시하였으나, 설명의 편의를 위해 화법, 작문, 복합의 순서대로 읽을 것을 권장함.

※ 해당 분석 내용은 문제 유형에 대한 구분일 뿐 문제 순서에 대한 구분이 아님.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의 순서가 다르게 등장할 수 있음. (화법, 복합, 작문으로 지문의 순서는 고정되어 있음)

1. 화법(발표문)

화법과 작문 1유형에서는 학생의 발표문, 강연자의 대본이 나타난다. 해당 지문은 항상 3가지 문제를 동반하는데 이 문제의 유형들은 다음과 같이 고정되어 있다.

1) 말하기 방식

말하기 방식 유형은 화자가 발표를 하며 보인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분석을 묻는 문제이다. 해당 유형의 경우, 지문의 첫 번째 문단과 괄호, 물음표가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그렇기에 1문단에서 화자의 행동과 발언을 보고, 괄호와 물음표만 찾으려 지문을 한번 훑은 후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방법을 통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보통 마지막 문단에 답의 근거가 있으므로 이것을 확인한다.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답이 한 방에 나오지 않았다면, 1문단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선지(발표 순서 안내, 발표 주제 선정 동기 설명 등)와 물음표, 괄호 등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선지(청중의 반응을 보고,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해가며 등)들을 미리 거르고 나머지 선지의 내용만 확인하여 문제를 풀 수 있다.

2) 자료 활용 방식

자료 활용 방식 유형은 화자가 발표를 하며 제시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발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당 문제는 자료의 위치를 바탕으로 정보의 위치를 추론하고 빠르게 선지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췌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지문에서 자료가 3번 제시되고, 문제에서 3개의 자료를 보여줬다면, 자료 1, 자료 2, 자료 3은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료로 대응되는데, 이를 통해 자료 1에 대한 정보의 위치를 쉽게 추론할 수 있다.

※ 드물게, 화자의 계획을 주고 이것의 반영 여부를 묻는 유형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선지와 지문을 대조해가며 문제를 풀기만 해도 문제가 매우 수월하게 풀린다.

3) 청중의 반응

청중의 반응 유형은 화자의 발표를 들은 청자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고르는 유형이다. 해당 유형에서 등장하는 청자들이 지문의 내용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이 유형은 지문을 읽지 않고도 풀 수 있다. 선지와 보기만을 비교해가며 문제를 풀면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이다.

조금 더 빠른 풀이를 위해 청중 1의 의견을 읽고 청중 1을 선지에서 찾은 뒤 비교하고, 청중 2의 의견을 읽고 청중 2를 선지에서 찾은 뒤 비교하는 순서로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한다.

2. 복합 지문(글과 토론, 혹은 토론과 글)

화법과 작문 2유형에서는 토론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 등장한다. 다만, 둘의 순서는 매 시험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토론->글의 순서가 60%, 글->토론의 순서가 35%, 그 외 특이한 지문이 5% 정도 존재한다. 5%에 해당하는 특이한 지문(지문이 3가지 등장함)의 경우는 단 한번 밖에 등장하지 않았고, 최신 기출도 아니었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토론->글이냐, 글->토론이냐에 따라 해당 지문에서 어떤 문제 유형이 등장하는 지가 달라지긴 하지만, 문제의 개수는 4~5개로 유지되며, 아래의 3가지 유형은 고정적으로 등장한다.

1) 발화 의도 분석

토론 부분에서 화자의 발화 의도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해당 문제의 경우 정말로 그 부분만을 찾아 비교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므로 풀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2) (가), (나) 복합문제

해당 부분이 화법과 작문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 지문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은 선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a. 토론의 경우 토론자들이 이야기한 것들 중 결론적으로 작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들만 단어로 정리해 지문 옆에 적어둔다.
- b. 글의 경우 모든 내용을 읽고 문제를 풀되, 읽고 난 뒤에 각 문단의 소주제를 문단 옆에 정리해둔다.

위 방법으로 두 지문을 모두 정리해두고, 이를 통해 지문을 서로 연계해가며 선지를 파악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3) 퇴고

작문 파트에서의 퇴고 유형과 마찬가지로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지만 드물게 한

가지 유형이 더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한다. 제 3의 글을 <보기>를 통해 제공하는 유형인데, 이는 글-> 토의 구조의 지문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해당 유형의 문제는 제 3의 글을 제공한 뒤 해당 글에 반영된 저자의 생각을 추론하는 문제로서, 다른 토고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문을 읽지 않은 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위의 3가지 유형과는 다르게, 유동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에 해당하는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학생의 역할

주로 토론->글 구조의 지문에서 자주 등장하며, 토론을 이끌어가는 학생(주로 학생 1)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다음 주제를 자연스럽게 제안하고 있다!' 등의 선지가 등장하며 발화 의도 분석 유형과 마찬가지로 비교를 통해 쉽게 풀이할 수 있다.

2) 글의 구조

작문 파트에서 나오는 유형으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글의 저자가 어떤 식으로 글을 구성하려 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며, 계획 반영 여부의 형식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글의 문단 별 소주제만 정리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 복합 유형의 지문은 지문의 길이가 매우 길어 지문을 이해했다라도 기억을 못해서 문제 풀이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지문을 읽고 이와 관련된 문제(보통은 2개)를 먼저 해결하고 이후 (나)지문을 읽고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한다.

3. 작문(작문 상황과 글)

화법과 작문 3유형에서는 항상 작문 상황과 이에 대한 글이 등장한다. 작문 상황은 간단하게 한 줄로 주어지기도 하고, 신문 기사 등의 형태로 주어지기도 한다. 해당 지문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질문 유형을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1) 계획 반영 여부

<보기>를 통해 글의 저자가 글을 쓰기 전 작성한 계획을 제공하고, 이것이 지문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유형이다.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글의 문단 별 소주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 그리고 이에 딸린 중요한 키워드들만을 빠르게 읽으며 각 문단의 소주제만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지와 지문을 비교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퇴고

작문 유형에서 출제되는 퇴고 유형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첫째, 글의 특정 부분을 조건에 맞게 수정한 결과를 고르는 유형, 둘째, 글의 특정 부분이 수정된 결과를 제공하고 이에 영향을 준 조언을 고르는 유형, 셋째, 글의 제목, 마지막

먼트 등에 빈칸을 만들어 두고 조건을 제시하여 가장 올바른 작문을 고르는 유형이다. 모든 유형은 보기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조건에 맞게 작문을 하는 첫째와 셋째 유형의 경우, 글의 특정 문단에서 드러나는 내용을 글에 꼭 포함하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럴 때에는 해당 부분만 빠르게 읽고 문제를 해결한다.

3) 자료 활용 계획

지문의 글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보충하는 방법을 묻는 유형이다.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각 문단이 나타내는 소주제와 자료에 담겨있는 논리 뿐이다. 따라서 [계획 반영 여부] 문제를 풀기 위해 정리한 문단 별 소주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각 자료가 나타내는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간단하게 키워드로 만들어 적어둔 뒤 이를 어느 문단에 넣을 수 있을지를 추출한 주제를 바탕으로 추정하여 문제를 해결한다.